

미얀마 양곤팀 보고서

2016.3월호

싸베빌라



미얀마 양곤팀 보고서

2016.3월호

싸베빌라

HOT ISSUE

미얀마 4기 아띠들은 누구??

널서리 활동, 그 속 이야기

일주일 만에 찾아온 시련,고난,역경

화제의 기타교실

더위와의 싸움

국외부재자 선거,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을 방문하다

CONTENTS

인물탐구 ●

3월 일정 ●

‘양곤 YMCA’ ●

활동 보고 ●

우리들의 이모저모 ●

개인 에세이 ●

싸삐빌라[미얀마어: 밥먹었어?]

라운아띠 15기 미얀마 양곤팀
허성주 이난희 박은정 송진우

인물탐구

한 달 동안의 국내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미얀마에 오게 된 네 사람...

각기 다른 매력을 소유한 이들을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양곤팀의 숨은 멤버
“우리 규홍간사님”



인물탐구



이름 : 이난희
나이 : 23살
사는 곳 : 양곤 YMCA 704호
좋아하는 것 : 사과 쇼핑
특기 : 잠자는 은정언니 깨우기

미얀마에 왜 오셨나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제가 여기 왜 있는 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미얀마였어요. 정말로요. 밤마다 은정언니랑 우리가 여기 왜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결론이 안 난다니깐요.

하하하 미얀마에 온 소감은요?

일단, 더워요. 덥구요, 더워요. 근데 또 좋아요. 한국에 있을 때 이러저러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여기와서는 '아 덥다.' '배고프다' 두 가지 생각 밖에 안해요. 단순해져서 좋아요.

인 물 탐 구

박은정
25살
난희 룸메이트
모기향 중독
맥주, 나무, 고양이



한 달동안 지내셨는데요,
하루 일과를 간략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난희가 언니일어나 라고 하면 일어나서 세수와 양치만 얼른 하고, 밥 5분만에 먹고 활동지로 나갑니다. 버스에서는 주로 노래를 듣고 창 밖을 멍하게 바라봐요.

스케줄 후 방으로 돌아오면, 인터넷 확인, 씻기, 버물리타임, 모기향 피우고, 노래 듣고, 가끔 영화도 때리고 맥주도 때리고 그러합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가장 행복할 때라.. 하나가 꼬이지는 않고 순간순간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샤워하고 나와서 에어컨 바람을 맞을 때.
버스 타고 가다가 우연히 멋진 나무를 보게 될 때.
정말 가끔 저 혼자만 가위바위보에 이겼을 때.
맛있는 음식을 찾았을 때.
등등등

인물탐구



미얀마에서 제일 맛있었던
음식 소개해주세요.

생 계이 하 건너 편 치킨 집
치킨과는 아저씨.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치킨을
먹고 있다.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치킨은 속이 덜 익은 상태로 약간 훈
제가 되어있어. 통닭을 주문과 동시에
기름에 바삭 익혀 주는거지. 너무 감사
하고 내가 한달 간 생활한 생활비의
거의 절반을 그곳에 다...

이름 : 허성주

나이 : 26살

사는 곳 : 양곤YMCA 703호

좋아하는 시간: 밤,

10시 이후

최근 연습하는 곡: 캐리비안의
해적 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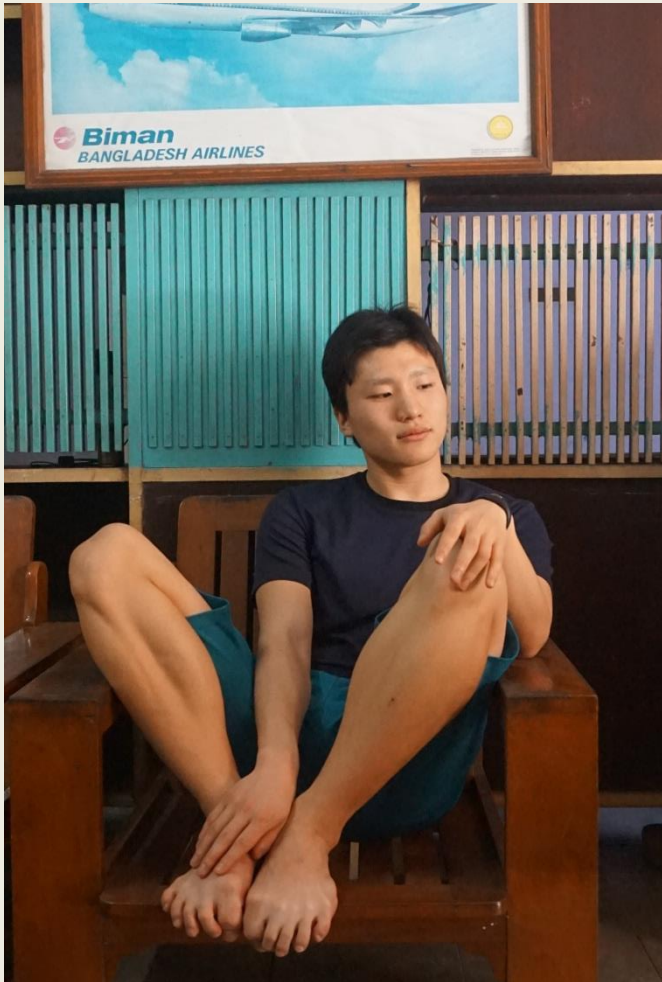
아 참 팀에서 기타선생님을
맡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한 달 동안 보람이 있으셨나요?

네...

지금 드는 생각은 내가 왜 기타얘기 꺼
냈을까 싶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들
고 오면 되는 건데, 왜 같이 기타를 사
러 가줬던 게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
같아서 난 할 말이 없다.

가끔 쉬고 싶을 때 이 씨가 나를
부를 때, 짜증이 난다.

인물탐구



이름 : 송진우
나이 : 25살
사는 곳 : 양곤 YMCA 703호

좋아하는 것: 치킨&맥주
좋아하는 장소: 5층 화장실

하루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언제인가요?

자기 전, 불끄고 누웠을 때.

(난희)왜?

편하다이가.

양곤 팀을 지켜보고 계시는(?) 수 많은 독자님들께 혹시 전하실 말 있으세요?

기쁨 누나, 좀 더 기대해 보세요.

라오스팀 잘 지내제?

(난희 지인들에게)
난희한테 맛있는 것 많이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3월 일정

SUN	MON	THE	WED	THE	FRI	SAT
		1	2	3 미안마 도착	4 현지 적응	5
6 휴식	7	8 활동지 둘러보기	9	10	11 OFF	12 대원어학당 & 아띠클럽
13 OFF	14 게스트하우스	15 마오끌라바	16 흘랑 따야 널서리 & 마이크 로파이낸스	17 쉐비타 사랑방	18 양곤Y 널서리 & 미안마 어	19 대원어학당 & 아띠클럽
20 OFF	21 일일스텝	22 널서리	23	24	25 OFF (부활절)	26
27 OFF	28	29	30	31 선거		



YMCA, 온 몸으로 표현하다.

양곤 YMCA

양곤YMCA는 생긴 지 100년이 넘었고, 2개의 건물로 이어져 있다. 게스트 하우스 운영, 널서리 운영, 마이크로파이낸스, 컴퓨터, 기타, 피아노등 각종 예체능 교육과 매주 종교행사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띠들이 양곤에 온지 3일째 되는 날, 양곤 YMCA의 General Secretary를 맡고 계신 닥터 다니엘(우따냐)을 산드라 간사님과 함께 뵈 수 있었다.

푸근하신 미소와 함께 미얀마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하셨다. 더불어 앞으로 5개월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활동보고



널서리

마이크로파이낸스

쉐 베타' 사랑방

게스트하우스 일일스텝

아띠클럽



마 오 플라바 YMCA 널서리

널서리

흘랑 따 야 YMCA 널서리

양곤 YMCA 널서리



마 오 플라바 YMCA 놀서리



양곤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쯤 가다 보면
마오플라바가 나온다. 처음 마 오 플라바 놀서리에 도착했을 때 잊혀지지
않는다. (거짓말 조금 보태면) 100미터 전방에서 부터 들리던 아이들의
노래소리에 들어가기 전부터 잔뜩 겁이 났었다... 정말로



45명의 아이들과 네 분의 선생님이 있는 이곳은
언제나 열기로 가득하다. 매일매일 35도가 넘는 날씨임에도 지치지 않고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또 그런 아이들을 열정과 카리스마 넘치게 지도하시
는 선생님을 보면 감탄이 나온다.

마 오 플라바 YMCA 놀서리



아띠들이 한 달 동안 적응 기간을 제외하고 진행한 세 번의 수업은 색깔 배우기, 바람개비 만들기, 신체 배우기였다. 그 중 바람개비는 가장 성공적인 수업이었다. 양곤Y 도서관에 있던 이면지와, 14기가 활용하라고 남겨둔 빈 페트병을 이용했는데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다. 그리고 이 날 느낀 점 한 가지.

아띠들의 힘듦과 아이들의 만족도는 비례한다는 것.



아이들은 찌는 듯한 더위에도 굴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에게 안기고, 업히고, 다가온다.

마마! 뿌레 뿌레 (더워요 더워요)하면서 도 내 무릎에 털썩 앉아있는 아이를 보면 어이구 이 놈 참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그래도 좋았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으면서도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에 기분이 좋았다.

마 오 플라바 YMCA 널서리

점심시간과, 간식시간마다 선생님들께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신다. 어느 날 배부르게 밥을 먹고 튀어나온 배를 퐁퐁 두드리다가 문득 든 생각,

‘선생님들은 식사를 언제 하시지? 아이들 밥 챙기고 나면 바로 낮잠



시간인데 그때는 또 아이들을 재우느라 끼니 챙기실 시간이 없으실 텐데..’
“서야마, 싸베벨라?(선생님 밥 먹었어요?)” 하고 물으니 “머싸부, 야레 ~”
(안먹었어, 괜찮아~) 하셨다.

아이들을 챙기느라 점심은 그냥 매번 안 드신다고.. 식사를 거르시면서 우리들 반찬과 간식은 꼭 챙겨주셔서 감사하기도, 죄송하기도 했다.



설거지를 하러 앞마당에 왔는데, 수도꼭지가 없다. 그리고 눈앞에 딱하니 있는 펌프. 쇠막대기를 넣고 위아래로 당기면 물이 나온댄다.
힘쓰는 일이라면 자신이 있는 터라 나섰다. “내가 해볼래!!!!”
그리고 물은 쿵쿵쿵쿵 붓물터지듯 나왔었다....



흘랑 따 야 YMCA 널서리

아띠따라 고민따라 깊어가는 흘랑따야



다른 사이트와 달리 유난히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게 흘랑따야란 곳이다. 널서리 활동 중 가장 많은 아이들이 있는 곳인 반면, 우리들은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는 곳. 게다가 어린 연령층까지 있어 다소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첫 만남 당시 어린 애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반가워(?) 눈물까지 흘렸다는 건 사담.



흘랑 따 야 YMCA 널서리



대략 60여 명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이끌어어나가기에도 벅찬 적이 있었고 대놓고 놀아주려다 보니 손발이 부족하긴 물론이거니와 체력까지 모자라 현지 선생님들께 구원의 눈길을 요청하기도 여러 번.

1시간 반이란 짧은 시간만 함께 하다 보니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잔여물이 남은 것 같은 아쉬움도 더러 들었다.

물론 “오전 시간만 보내고 나오자.”란 마음 가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맑고 깊은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을 보자니 그럴 수도 없는 노릇.

때문에
항상 흘랑따야에 오기 전날. 우리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곤 한다.

양곤 YMCA 널서리



양곤Y 널서리 수업이 있는
금요일이면 기분이 좋다.
9시까지 늦잠을 잘 수 있고 다른 마
을의 널서리에 비해서 상당히 시원
하기 때문이다.

이곳의 아이들은 숫자도 적고 조금은
얕전한 편인 것 같다. 아무래도 마요
플라바, 흘랑따야의 널서리는 좀 더
자유분방한 마을의 느낌이 나는 반면,
양곤Y는 도시에 있는 널서리다 보니
깐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다.



학생수는 적을 때는 10명 많을 때
는 20명 가까이 되는 것 같다. 아
이들은 적지만 선생님들은 3~4분이
나 계셔서 크게 널서리 수업을 진
행하는데 힘들었던 기억은 없던 것
같다. 오히려 다른 곳들에 비해 크
게 우리가 하는 것이 없는 것 같기
도 하다.

글.사진-허성주 단원



더 격해지는 몸짓들



마이크로 파이낸스

다른 사이트와 달리 흘랑따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YMCA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활동.

어렵게 말하자면 한 없이 어렵겠지만,
쉽게 말해 소액 대출을 통해 밑천이 없는 가계의
소득 증대와 해당 지역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 하는 활동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건
소액 대출을 통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집을 방문,
잘 살고 계신지에 대한 안녕을 묻는 게 전부이다.

다소 단출하다 볼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집을 방문해보는 게
처음인 우리에게겐 획이나 인상 깊은 경험이었다.
대나무로 엮어 만든 집, 마음 먹고 뛰어 놀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장소. 엮은 대나무 사이사이로 풍물이 흘러가는 전통 집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가 간단 소식에 부랴부랴 청소하시고,
시원한 음료까지 내주시는 아주머니들.

그러나 인사 후 찾아온 침묵은 아띠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대화를 이어나가기에도 미안마어가 부족한 우리였고,
돈을 빌려준 단체에서 방문했다 사실도 괜히 마음을 짓눌렀다.

아무것도 아닌

조용한 분위기도 무겁게 느껴졌을 정도로.

결국 한두 차례의 가정 방문 후

이 활동이 부담스럽단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 편에선 이 기회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보고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도 부분.

앞으로 어떤 활동이 이어질지는 모르는 상황 속,
우리들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글' 송진우, 사진' 박은정 단원



쉐 베 따' 사랑방

쉐 베 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양곤YMCA에서 버스로 왕복 근5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쉐 베 따를 가보기도 전에 현지 스텝들로부터, 그리고 주변인들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라는 설명을 먼저 들었다.

37도를 웃도는 더위에, 덜컹거리며 달리는 불편한 버스로 한 시간도 힘든데 두 시간 넘게 가려니 나는 또, 짜증부터 났나 보다. 더군다나 쉐 베 따는 널서리도 아니고, 사찰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초등학교 연령의 아이들을 만나는 곳. 나는 부담스러웠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이었다.

미얀마에서 학교는 너무 더운 여름에 3개월이나 방학기간을 가진다. 쉐 베 따도 우리가 갔을 때 방학이었고, 텅 빈 사찰에 동네 아이들만이 몇 명 와서 구슬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왔다.

학교가 쉬는데 우리끼리 가서 무얼하나 해서 회의를 통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동네 아이들을 모아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보기로 했다.

그렇게 **우리만의 '쉐 베 따 사랑방'** 열리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쉬움이 가득하다. 사랑방을 계획하고 첫 주는 우리가 수업할 장소와 그 사찰주변을 청소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사랑방 수업을 알리며, 아이들을 처음 만나보는 한 주를 더 가진 후, 우리는 선거로 인해 3월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한 주에 하루인데다, 거리도 멀어서 예기치 못한 일정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하루 일정이 달라지는 것이지만, 한 주를 더 기다려야 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저 미안해진다. 널서리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쉼 빼 따는 우리가 가지 않으면 모일 수 없을 것이지라 더.




그리고, 쉼 베 따는 처음에 소개한 것과는 달리 성주오빠도, 진우도 특히 좋아하는 곳이 될 만큼 사랑스러운 동네이다. 2시간 가량 큰 버스를 타고 달려가다, 작은 트럭으로 갈아타 30분 정도 더 들어가면 도착하는 우리의 활동지는, 큰 골목길 그 가운데 사찰이 있고, 그 주변으로 골목마다 집들이 즐비한 한적하고 여유로운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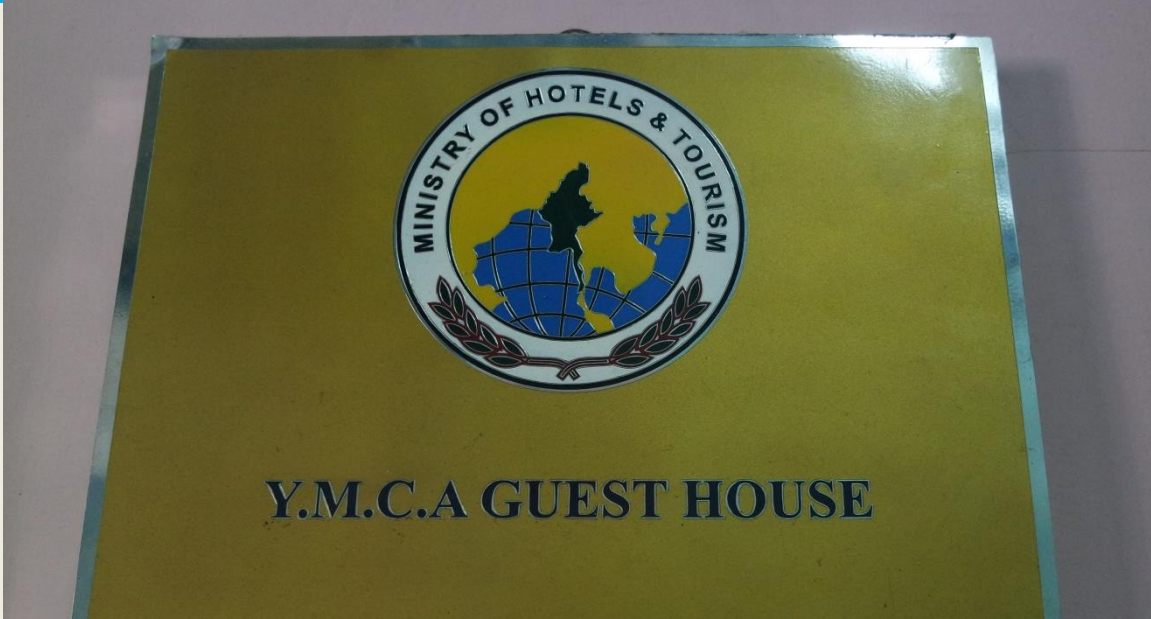
정리하기가 힘들지만, 쉼 베 따는 나에게 표현하기 힘든 애정을 안아가고 있는 곳이다. 트럭버스를 내리는 곳에서부터 우리를 보고 인사하는 가게의 아저씨들, 우리들에게 장소를 내주시고 반겨주시는 스님분들, 기억하고 눈을 보며 우릴 알아봐 주는 아이들, 사찰의 수 많은 고양이와 개들까지. 홈스테이를 위해 한 달이나 자리를 비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뭐라고 그 빈 자리가 걱정되더라.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아쉬운 것이지. 한 달 동안 한 주에 하루라도 보지 못 할 그 아이들이 그리워서, 사랑받고 사랑주고 싶은 나여서, 같이 놀고 이런저런 것들 해보고 싶은 게 많아서. 벌써 보고싶다.

어디든 그 곳의 사람들이 그 장소의 이미지를 분위기를 내게 결정짓는 것 같다. 역시, 사랑이 좋다



글. 사진-박은정 단원 

게스트 하우스 일일스텝



사실 우리가 게스트 하우스에서 지내서 인지 스텝들은 우리를 손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뭔가 꺼림칙했다. 그게 정확한 표현 같다.) 그래도 이진 아닌 것 같았다.

그리고 14기에서 처음 시작한, '게스트 하우스 일일 스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니 우리를 손님으로 어렵게 대하지 않고 더 친근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이 얼마나 고된지를, 우리에게 식사를 전해주는 것조차 얼마나 힘든 일 인지를 몸소 알게 되었다.

같이 일을 하다보면, 내가 일을 너무 못해서, 요령도 없고, 느리고 그래서 미안했던 적도 많았다. 오히려 방해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했다. 그럼에도 시종 일관 해맑은 미소로 나를 대해주고, 칭찬야레(귀엽다), 흘라레(예쁘다) 칭찬해줘서 고마웠다. 너무도..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힘쓰는 건 자신이 있기에

글.사진-이난희 단원



아띠클럽

사실 첫 만남부터 특이하고
의심스러웠다.
애초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미얀마
청년들을 만나는 활동이 있다 건 알
았지만
과연 이들이 얼굴도 모르는 우리를 보
러 양곤YMCA까지 올지도 불확실,
그 자체였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예상 밖. 좋지
못한 컨디션 탓에 제대로 된 첫만남
을 준비하지 못한 건
도리어 우리 쪽이었고, 그런 우리를
보러 3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온
건 그들이었다.





알아갈수록 첫 만남 만큼이나 특별한 그들.

스마일이란 형은 몇 년 째 한 여자를 짝사랑하고 있는 중. '잊어야지, 잊어야지.' 하면서도 잊지 못해 호주에 있는 그 여성분을 떠올리며 영어 책을 손에서 놓질 못 한다.

추이 누나는 싱가포르 간다며 우리랑은 한 주만 보고 마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항공비 만큼의 돈을 쓰며 우리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보미 누나는 우리가 별로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우릴 보러 오고 뚜뚜 누나는 친구들까지 여럿 거느리며 나타나 아띠클럽의 엄마로 자리매김했다. 피크닉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오지 않은 우리를 혼내기는커녕 밥까지 먹여주는 모습은 어미새, 그 자체였다.





깐도지 호수, 마하반둘라 공원, 인야 호수, 쉐더곤 파고다 등 꽤나 많은 곳을 다녔다.

한 달이란 시간. 단지 우리 넷이서 돌아다니기로 했다면 가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을 것들을 그들 덕에 할 수 있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해주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에게 넘치는 친절을 베푸는 중. 가끔은 정말로 그들이 단순 친구들이 아니라 이 지역 YMCA 직원분들의 변장한 모습이 아닌가, 란 착각도 든다. 여전히 친절의 근원이 의심스러운 그들이지만, 아무튼 좋다. 정말로.

아띠클럽이 없었으면 3월이란 한 달. 얼마나 지냈을까, 싶다.



양곤의 온도는?



어양 뿌레...
(겁나 더워)

우리들의 이모저모



KB 국민은행 소장님을 만나다

미얀마에 온지 2주차, 우리는 김학수 소장님을 만나뵙게 되었다. 소장님은 바쁜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셨다.

그리고 한국음식을 너무나 그리워했던 우리에게 맛있는 저녁을 사주셨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소장님은 미얀마가 좋다고 하셨다.

아니 사실 중독이 되는 나라라고 하셨다.

사실은 그 날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점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똥말똥 하는 것 같다.



미얀마에서의 5개월동안 살아가는 경험이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 이야기 해주셨다.

글-이난희 단원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 과자습격사건

3.31일 국외 부재자 투표를 하러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한국 대사관에 갔다. 은정단원은 '살다살다 내가 한국 대사관을 다 가본다 내가' 라며 수줍게 말했다. 대사관에 들어가보니 벽에 걸린 액자부터, 의자, 화장실까지 모든 것이 좋아보였다. 그래서 우와 우와 감탄을 했었다.



투표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고, 우리는 아쉬워서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런데 대사관 직원 분께서 온 김에 차를 마시고 가라고 하셔서 옆에 있는 휴게실에서 잠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 과자습격사건

방에는 온갖 차와, 커피(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한 달지 않은 아메리카노), 한국과자가 쌓여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빠른 손놀림으로 과자를 해치우기 시작했다. 중간 중간 쓰레기와 부스러기를 버리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배가 차고, 정신을 차리니 아차. 이거 선거 봉사자분들 드실 건데 우리가 너무 많이 먹었다...

얼마나 드신 거예요?

큼지막한거 한 곱이랑요.
아 그 카스타드 한 박스랑요... 초콜릿도 절반 먹구요.
웨하스도 좀 많이 먹었구요..
주스 한 통 다 비웠구요..
직원 분께서 조금 놀라시더라구요.

아니 그렇게 많이 드셨나요?

조금 핑계를 대보자면...미얀마에서는 한국 과자가 비싸요.
아니 한국 가격이어도 미얀마 물가로 치면 비싼데
한국 가격보다 더 비싼 과자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쉽게 못 먹어가지구..
아! 그리고 신상 과자가 있길래요..(소심)
죄송합니다...

- 주범 이 모양



라운아띠의 살아있는 화석 '기쁨언니'를 만나다!

미얀마에서 활동중인, 라운아띠 1기
출신의 국제자원활동가



신기했다. 라운아띠 1기라니.. 그리고 같은 양곤에 있다니..
언니랑 이야기를 하다보니, 뭔가 미얀마에 계시는 라운아띠 간사님처럼
느껴졌고, 든든했다.

우리가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잠시 나누었는데,
언니가 리액션의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대된다고 하신 탓에
우리들은 열정을 다시금 불태울 수 있었다.
입밖에 내버렸으니.. 잘해야겠다는 긍정적인 부담감과 함께



어깨 담 걸리겠다...(은정)



일주일만에 찾아온 위기, 시련, 역경

그것은 똥

모르겠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시작은 진우오빠였다.
안그래도 하얀 진우오빠는 점점 더 창백해져만 갔고, 볼은 더 패어갔다.
그리고 두번째는 성주오빠였다.
둘은 밤새 말 없이 화장실을 이용했다. 함께..

뒤 이어 나였다.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나.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밤에 자다가 깬는데 내가 화장실에 있었다.
나는 간 기억이 없는데... 눈떠보니 앉아있더라
내가,,, 소름이 돋았다. 그 정도였다.

은정 언니는 무탈했다. 부러웠다. 정말로

왜 시작했을까, 성주의 기타교실

송진우(숨겨진 보석)

아마 이 학생은 장담하건데 기타를 가져오기 귀찮았을 것이다. 분명히. 한국에서 기타를 가져오잔 얘기를 했을 때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였다. 한번쯤 기타를 배워 보고 싶었다 했고 집에 기타가 있었지만 절대 하지 않았던 학생이었다. 그러나 이제 유망주가 됐다니.

장래성	★★★★★★
의욕	★
성실성	★★★★★
이해력	★★★★★★★
꾸준함	★★★★★★★★★

거의 매일 기타연습을 한다.

하지만 10분 정도 연습하면 끝.

이 학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의욕이 크게 없다는 것이다. 누구보다 꾸준하게는 하지만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다' 라는 생각이 있어 보인다. 우리에게 있는 기타 3대중에 가장 박센 기타를 가지고 시작했으면서도 군말 없이 연습하더라. 아마도 자기 기타가 박센 건지 몰랐던 게 아닐까 싶긴 하지만. 조금만 더 의욕이 생긴다면 일취월장 할 것 같다.

(연습곡 Once OST 'Falling slowly', 이적 '걱정말아요 그대')

왜 시작했을까, 성주의 기타교실

박은정(불타다 만 촛불)

미얀마 도착하고 일주일정도 지났을 때였을까, 한번은 보족시장에 갔다가 악기점이 있어서 기타를 사려했지만 못 사게 막았다. 값은 저렴했지만 기타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었다. 그게 화근이 될 줄이야.

장래성	★★★★★★
의욕	★★★★
성실성	★★★★★★
이해력	★★★★★★★★★★
꾸준함	★

처음에 10cm의 '10월의 날씨' 라는 곡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 어떤 학생보다도 자기화 하는 게 빨랐다. 알려주면 금방 따라했다. 근데 그게 끝이었다. 금방 따라하더니 금방 안하게 다. 물론 자기 기타가 없다보니 다른 학생들에 비해 진전이 느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때 기타를 사게 내비 두는 것이었는데. 습득하는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망먹고 제대로 시작하면 잘 할 것 같다.

(연습곡 10cm '10월의 날씨')

왜 시작했을까, 성주의 기타교실

이난희(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미안마에 오기 전, 그 누구보다도 기타를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앞섰던 학생이었다. 한국에서 출국 전 캠프 날 무려 30kg가 넘는 짐을 싸매고 서울의 낙원상가까지 가서 기타도 샀었다. 그만큼 선생으로서 이 학생에 대한 기대도 컸다.

분명 가르치는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미안마에 '오기 전'까지는.

장래성	★★★★★★
의욕	★★★★★★★★
성실성	★★★★★
이해력	★★★
꾸준함	★★★★

상당히 자존심이 센 학생이다. 좋다고 본다. 그 자존심이 원동력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러나 처음의 어려움을 있다 보니 강한 자존심 때문에 더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사람마다 습득하는 속도는 다르기 마련이니 잘 할 것이다 믿는다. 누구보다 의욕이 강한 학생이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길게 보면 가장 크게 성장할 학생이다.

(연습곡 Once OST 'Falling slowly', 아이유 '금요일에 만나요', 나르샤 'I'm in love')

왜 시작했을까, 성주의 기타교실

허성주(선생님)

스스로에 대해선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 이제 초급자에서 한 단계 벗어나게 된 것 같다! 예전에는 연습할 엄두도 못 냈던 것들을 이제는 조금씩 해내고 있는 자신이 대견하다. 나중에 작곡도, 밴드도 해보고 싶다.

장래성	★★★★★★★★★★
의욕	★★★★★★★★★★
성실성	★★★★★★★★★★
이해력	★★★★★★★★★★
꾸준함	★★★★★★★★★★

선생으로선 으음. 합격점은 아닌 것 같다. 진우는 같은 방에 살다 보니 틈틈이 자주 잘못된 것을 잡아 줄 수 있지만 난희나 은정이는 그럴 수 없다 보니 진우에 비해 알려주는데 한계가 있다. 기타 들고 오면 책임져 준다 해놓고 조금은 소홀해지게 된 것 같구나. 미안하다 애들아.

(위의 내용은 모두 허성주 단원의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이므로 그 학생에 대해 오해 하셔도 무관합니다.)



혼자 뭐하는데?

개인 에세이



낯선 곳에서 익숙해지기, 익숙한 곳이 또다시 낯설어진다는 것.
여행에서 배운다는 2가지. 이번 5개월이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인가. 그래서 내 삶은, 앞으로의 빈칸들은 어떻게 채워질까.
나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 어떻게 성장하고 그래서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하고 어떻게 행동 할 것인가

-출국 전 2월 20일 일기 중

오랜 시간 동안 잠을 푹 자고, 자고 또 자고 일어나면 알 수 없는 공허감에 빠질 때가 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낮설어지기 시작한다. 나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 있다는 것이 두렵다. 왜 여기 있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무얼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래도 내 옆에 언니가 있고, 오빠들이 있어서, 내가 혼자가 아니어서 다행이고 안심이 된다. 아플 때 아플 수 있어서 다행이다. 힘들 때 힘들어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혼자가 아니고 함께여서 위안이 된다.

삶을 이야기 하고, 한국을 이야기 하고, 행복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나 이국적인 냄새가 물씬 나고 모든 것이 낯선 곳에서 너의 삶은 무엇이었는지, 나의 삶은 어땠는지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를 이야기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곳이 너무 싫지만 (아직까진)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좋은 게 좋아서 많이 좋아서 좋다.

이곳에서의 삶이 5개월이라는 너무나 시한부(?) 적인 탓에 하루를 잘 살아야겠노라고 생각했다. ...

봉사활동은 개뿔. 실상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 같다. 말도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새로운 이곳에서 누굴 도울 수 있겠어. 그냥 내 옆의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감사함을 느끼고 겸손하게 사려다.

- 3월 12일 일기 중

이난희



အထူးစိစစ်ရေး
အဖွဲ့ဝင်များ

အထူးစိစစ်ရေး
အဖွဲ့ဝင်များ

အထူးစိစစ်ရေး
အဖွဲ့ဝင်များ

အထူးစိစစ်ရေး
အဖွဲ့ဝင်များ

အထူးစိစစ်ရေး
အဖွဲ့ဝင်များ

အထူးစိစစ်ရေး
အဖွဲ့ဝင်များ

အထူးစိစစ်ရေး
အဖွဲ့ဝင်များ

အထူးစိစစ်ရေး
အဖွဲ့ဝင်များ

မဟာမုနိလောကအိမ်ထောင်ရေး
သဘာဝကျကျအောင်မြင်စေရန်
အထူးစိစစ်ရေးအဖွဲ့ဝင်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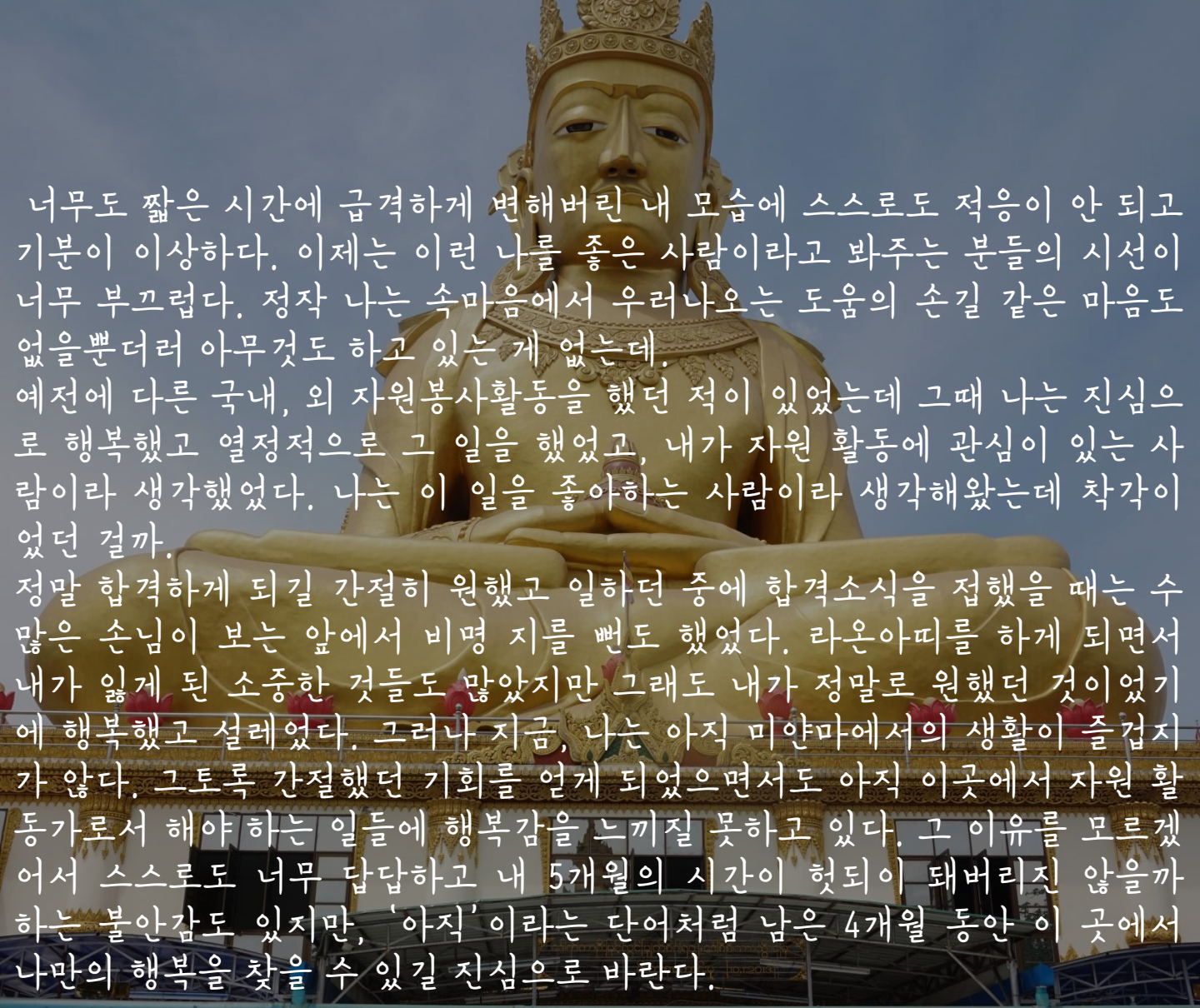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곳에서의 적응을 할 수 있게 해줄만한 시간일까.

내 지원 동기는 '라운아띠'라는 5개월간의 해외자원봉사 경험을 통해 더 성장하게 될 내 모습이 기대가 되어서였다. 그 성장이 자원 활동가로서이든 사람 허성주로서이든. 지원서를 쓰고 이전 기수 분들의 현지 활동보고서를 보면서 각자의 큰 고민에 머리아파하다가도 어느덧 그것들을 이겨내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멋있어 보였고 나도 그런 성장을 하게 되길 원했다.

미얀마에 오기 전 한국에서의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길 원했고 호의를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나보다 다른 이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고 좋은 사람 콤플렉스라는 것도 조금 있었지만 그런 내 자식이 나쁘지 않았다. 팀원들과 함께했던 한 달의 국내 훈련 때도 팀원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던 만큼 당연히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일거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야 깨달은 것은 내가 그다지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다. 무언가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의욕도 사라진 것 같고 그저 내 자식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내 자식 '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식 '만' 중요해 진 것이다. 국제 자원 활동가로서, 4명 중 한명의 팀원으로서 이곳에 왔고 이 제한적인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무언가의 역할이 있는 것일 텐데. 다른 사람이 받게 될 수도 있었던 이 좋은 경험을 내가 누려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너무도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변해버린 내 모습에 스스로도 적응이 안 되고
기분이 이상하다. 이제는 이런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봐주는 분들의 시선이
너무 부끄럽다. 정작 나는 속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도움의 손길 같은 마음도
없을뿐더러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는데.
예전에 다른 국내, 외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진심으
로 행복했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했었고, 내가 자원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
람이라 생각했었다. 나는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왔는데 착각이
었던 걸까.
정말 합격하게 되길 간절히 원했고 일하던 중에 합격소식을 접했을 때는 수
많은 손님이 보는 앞에서 비명 지를 뻔도 했었다. 라온아띠를 하게 되면서
내가 잃게 된 소중한 것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었기
에 행복했고 설레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아직 미얀마에서의 생활이 즐겁지
가 않다. 그토록 간절했던 기회를 얻게 되었으면서도 아직 이곳에서 자원 활
동가로서 해야 하는 일들에 행복감을 느끼질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모르겠
어서 스스로도 너무 답답하고 내 5개월의 시간이 헛되이 돼버리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지만, '아직'이라는 단어처럼 남은 4개월 동안 이곳에서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첫 달이라서 할 말이 많았나보다. 쓰고 보니 안 좋은 말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한 달의 시간을 통해 내가 느낀 것들이다.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어떤 일을 겪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또한 잘 지나가길.



허성주



내가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다,
이제껏 나는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나름 자부하며 살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다.
미얀마에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양곤 공항에 내리자마자 온 몸을 감싸는
습한 더위와 약간의 피곤함에 짜증부터 확 났다. 앞으로 5개월을 지낼 방을
보고는 기분이 더 나빠졌다.
입에 안 맞는 음식, 더위, 벌레들, 화장실의 샤워기 수압까지 날 너무 쉽게
짜증나게 만들었다.

딱 2주였던 것 같다.
이 모든 환경에 대해 적응하는 데 걸린 시간은,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라는 데에 적극 공감한다.
내가 한국이라는 환경에 몸이 익숙해져 있었을 뿐, 미얀마에서 또 이 곳에
맞게 적응해가고 있는 내가 느껴진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즐기게 된다. 순간순간을
단순해진다. 생각도, 불필요한 걱정들도, 나의 외면도, 내면도 거품을 짝 걸
어낸 느낌
그리고 이제는
보이지 않던 더 많은 것들이 내 눈에 보인다.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나무, 고양이, 아이들
순간순간, 자주 '행복하다'고 느낀다. 하루 동안에도 몇 번씩이나.
그래서 좋다. 지금은.

아 여전히 나는 모든 것에 짜증도 자주 낸다.

3월 중 어느 날
박은정



벌써 한 달이 됐더라고. 시계 달력의 앞자리는 3에서 4로 변해있었고. 그래서 갔던 것 같아. 혼자서 이름 모를 강둑까지 걸어가 바다인지 강인지도 모를 물이 그저 흐르는 걸 보러. 난생 처음 타국에서 살아가는 게 정신없긴 없었는지 그간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오래간만에 가만히 앉아 양곤강 따라 배 떠가는 거 보면서 그동안 뭐했나, 생각을 정리하는데 그다지 대단한 고민거리 같은 게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고. 다만 내가 지금 왜 미얀마까지 와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찾기가 애매할 뿐. 매일 티 한 점 없이 맑은 아이들과 눈 마주치고 놀고, 같이 덩굴고 때론 장난삼아 괴롭히기도 하고, 또 미얀마란 낯선 나라에서 과거의 한국과 닮은 익숙한 삶의 풍경을 구경한다는 게 나쁘단 건 아니다. 충분히 값지고 과한 복(福)이 굴러 들어온 거지 나한테는. 다만 애당초 자원 활동에 대단한 포부, 관심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았던 터라 괜히 여기 와서 뭔가 더 혼란스럽고 그런 걸지도 모르겠다.

“대학생활 중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지원한 거라면, 진정으로 자원 활동을 준비하고 계획한 학생에게 이런 기회가 돌아가는 게 옳지 않나요?”란 면접관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시간만 보냈던 게 아직도 생생하다. 근데 지금도 하나 변한 게 없거든. 왜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여전히 대답을 못하고, 고작 한다는 게 어디로 흐르는지 알 수 없는 황톳물 위로 선선히 부는 바람이나 맞으며 생각한답시고 앉아있는 게 고작이니까.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다. 방글라데시 3인방이 말을 걸어온 게.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무 생각하는 척 한다고 운을 뚫던 걸로 기억이 난다. 분명 그다지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는데 악의가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 또 상황이 충분히 그럴만했고, 당시 강가에 혼자 걸터앉은 남자 하나가 수평선 너머로 시선 던져놓고 한쪽 손으로 턱까지 괴고 있었으니.

우리 넷 다 타지에서 온 남자들이라 그런지 처음 만난 것 치곤 껍이나 죽이 잘 맞았어. 여자 얘기roman 30분을 넘겼으니까 말 다했지. 옆구리에 짝 없는 남자 넷이서 하는 여자이야기에 슬슬 단물이 빠질 때쯤, 내 고민을 털어놨어.

“너넨 왜 미얀마까지 왔냐?”

너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솔직한 얘기들을 풀어놨지. 사실 우리도 미얀마에서 일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사실 1순위가 미국이었고 2순위가 영국이었다고. 그런데 살다보니 지금 이렇게 미얀마에서 돈 벌어먹고 살고 있고, 계약이 끝나면 또 어딘가로 가야하는데 그곳이 어디인지는 모른다고. 우리 님은 게 또 하나 있더라고. 나도 미얀마를 선택하진 않았었거든. 아무튼 그 후 무거워진 분위기를 따라 자연스럽게 찾아온 정적은 우리에게 충분히 생각할 만큼의 시간을 주려는 듯 길게 이어졌어. 한 녀석이 “This is life.”라고 말할 때까지.

크크거리며 나머진 씩씩하게 따라 웃을 수밖에 없었지. “yeah, the life is.” 한 달 새 눈에 익은 길을 더듬으며 숙소로 돌아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놓은 게 없었다. 그저 짜이어진 스케줄을 따라갔다는 것밖에. 현지에 가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겠다, 란 말도 과욕이었는지 정작 내가 온 이유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근데 한 달이란 시간이 보기에 따라 벌써 한 달이 아니라, 아직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게 되기도 하니까. 앞으로 4달이 더 남은 상황이고. 그 3인방의 말마따나 어차피 알 수 없는 게 삶이라면 굳이 조금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나도 일단 좀 더 지내보려고. 숙식까지 제공받으면서 이래도 되나, 싶지만 별 수 있나. 이게 지금 미얀마에서의 내 삶인데.

“This is life as well, right?”

제주 민 바래

